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1. 마약류 및 약물의 정의

WHO의 정의에 따르면, 마약류 및 약물은,

-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내성),
-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느끼며(금단증상),
-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약류 및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도 많은 해를 입게 된다.

2. 마약류 및 약물의 종류와 피해

1) 각성제(중추신경계의 작용을 강화)

(1) 암페타민(히로뽕)

구강·주사·흡연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암페타민은 적은 양을 단기간 사용할 경

우는 불안·불면·졸음·식욕감소·두통 등이 오게 되며, 단기간 많은 양을 사용하면 강력한 부유감, 발한, 수다스러움, 심장마비, 환각·편집증·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암페타민을 장기간 사용하면 영원한 불면, 걱정과 긴장,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계심(의심이 많아짐)과 과도한 자신감, 식욕억제에 의한 영양 결핍, 피부가 꺼칠해지며 심리적·육체적 의존 및 내성이 발생한다.

(2) 코카인

흡입·흡연·주사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카인은 일반적으로 행복감, 경계

심, 식욕감소, 맥박이 빨라짐, 수면 욕구 감소, 수다스러움, 과도한 자신감, 혼돈, 걱정 등을 유발한다.

코카인을 다량 사용하면 강력한 부유감, 수다스러움, 강력한 흥분, 식은 땀, 미약하고 빠른 맥박, 구역질과 구토,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경질, 불면, 성불능, 식욕상실, 갈증, 그리고 만성적인 사용의 경우 코조직이 파괴되고 흡연으로 허파 외상이 야기되고 내성, 신체적·정신적 의존 등이 발생한다.

(3) 담배

흡연은 심박률과 혈압을 상승시키고 호흡이 빨라지게 한다. 또 지나친 흡연은 육체적·정신적 의존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연하면 폐기종·폐암·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4) 카페인

카페인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위산분비를 증가시키며 신경질적인 성격을 유발한다. 남용하면 궤양상태를 악화시키고 습관적으로 사용하

면 내성이 발생한다.

2) 진정제(중추신경계의 작용을 약화)

(1) 바비투레이트

의학적으로 간질, 불면증 치료, 수술 전 및 수술기간 동안 환자를 이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심박률과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반응이 느려지고 혼란, 감정통제 약화, 실제 왜곡, 경각심 감퇴 등의 증상이 온다. 또 수면부족, 만성 피로, 기억력·판단력·사고력 저하, 우울증, 내성, 육체적·심리적 의존 등이 온다.

바비투레이트를 사용한 후 운전이나 복잡한 기계를 조작할 경우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 신경안정제(벤조디아제핀)

의학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이용되는 벤조디아제핀은 단기간 사용할 경우 이완, 졸음, 기억력과 사고력 감소, 불분명한 발음, 전율, 심박률이 빨라짐, 두통, 조홍(얼굴과 목이 붉어짐) 등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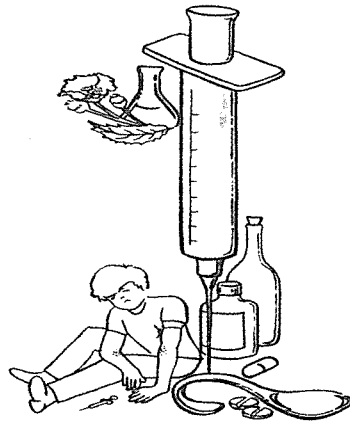
또 다량 사용하면 혼미, 혼수, 호흡정지, 경련 등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과량 사용 시에는 깊은 수면, 마비, 혼수상태를 야기하고 생생한 꿈, 두통, 구역질, 성기능 장애, 사

고력과 기억력 문제, 조정력 상실, 인성변화, 내성, 육체적·정신적 의존, 금단 증상 등이 나타난다.

(3) 술(알콜)

술을 마시면 일시적 행복감이 올 수 있으나 조정력 상실, 중독, 숙취, 내성·정신적 의존 등이 나타난다. 또 장기간 폭음하면 간질환·간암·심장병·영양실조·기타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음주운전 시 방향 감각 및 반응력이 약화되어 사고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3) 환각제(인지와 의식 변화)

(1) LSD

구강 혹은 피부를 통해 흡수·이용하는 LSD는 심박률 및 혈압을 상승시키고 불규칙적인 호흡을 증가시킨다. 또 다행감(도취)을 느끼고 사실과 환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감각왜곡, 환각, 편집증, 폭력, 공포, 불안 등에 시달리게 된다.

LSD를 단기간 사용하면 생생한 환각과 공간·시간왜곡 등 감각이 왜곡되고 무감각, 근육 약화와 조정력 손상 등이 초래되며 장기간 사용하면 남용자 어린이의 선천성 결손 위험이 증가된다. 또 LSD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재연 현상이 발생하며 자살과 사고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다.

(2) PCP

PCP는 의학적으로 동물안정제로 쓰이는 약물로, 주로 구강, 주사 혹은 흡연의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PCP 사용에 따른 증상은 예측할 수 없으나 다행감(도취), 지각 왜곡, 우울증, 환각, 혼돈, 졸음, 조정력 상실, 비이성적 행위 등이 초래되며, 약물에 대한 내성이 빨리 나타난다.

과량을 사용하면 정신병, 경련, 혼수상태, 사망 등을 야기하며, PCP의 남용은 살인, 자살, 사고 등을 유발한다.

4) 마약(고통감소)

마약에는 헤로인, 몰핀, 아편, 코데인, 메사돈 등이 있는데, 헤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약은 주로 고통감소를 위한 약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사, 흡입, 흡연, 구강 등의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호흡이 가늘어지고 배고픔, 갈증이 감소하며 졸음이 온다. 또 편집증, 혼수상태, 집중력 상실, 판단력

과 자아 통제력 상실 등이 초래된다.

내성이 생기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매우 고통스러운 금단증상을 겪게 된다.

그중에서도 헤로인은 중독성이 가장 강한 약물이다.

금단증상으로는 발한, 신경질, 불면, 위와 장의 장애, 손발의 경련과 심각한 고통, 호흡 장애 등이 나타나며, 과량을 사용하면 혼수상태까지 야기하는 깊은 수면, 저혈압, 느리고 불규칙적인 심박률, 혈중 산소량 부족, 경련, 호흡중단, 사망 등이 초래된다. 또 마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영상실조, 감염, 간염 등이 발생한다.

5) 대마초

대마초를 흡연하면 심박률이 증가하고 체온이 저하되며, 식욕이 증진되고 조정력이 상실된다. 행복감, 혼돈, 실제 왜곡, 우울증, 공황(공포·불안) 등이 초래되며 다량 사용 시에는 환각을 불러 일으킨다.

또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과 심리적 의존이 발생하며 과량을 사탕하면 편집증, 정신질환과 같은 상태가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생식기관의 기능이 약화되며 심한 경우 만성 폐질환과 폐암이 발생한다.

6) 환각흡입물질(흡입제)

본드·신나·가스 등 흡

입을 통하여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말한다. 단기간 사용하면 사고(졸음)로 인한 상처와 사망, 구토물이 막히거나 부적절한 호흡으로 인한 질식사, 갑작스런 흡입으로 인한 사망 등을 초래한다.

흡입제를 사용하면 졸음과 환각이 오고 판단력과 자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며 불규칙적인 심박률 증가, 호흡억제, 구역질, 구토, 흉통, 피로감, 수면장애, 계속적인 갈증, 식욕상실 등이 초래된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육체적 의존과 함께 심하면 암과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7]

(자료제공: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 내의학정보

수험생 부모, 두통 - 만성피로 등 호소

대 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데는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못지않게 이들의 부모들도 정신적 부담과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서울병원(원장 河權益) 정신과팀이 새학기를 맞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중동고등학교의 수험생 학부모 3백21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2백49명, 77%)는 수험생으로 인해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가정에서 배우자보다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배려(60%)하고 있고 손님초대 등 가족행사를 가능한 한 자제(59%)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외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대다수의 응답자(90%)들은 "과외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과외종류로는 학

원수강, 개인교습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한해동안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건강(54%)이 가장 우선시됐으며 다음으로 학교성적(40%), 교우관계(5%) 순으로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수험생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70%)를 통해 얻고 있으며 수험생을 위해 건강강좌에 참석한 경험은

8%에 불과, 적극적인 수험생 뒷바라지에는 다소 부족한 면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의 정신과 金昇泰 과장은 "입시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면서 "평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 대화통로를 열어 놓고 자녀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와 목표를 설정해 실현하는데 힘쓰는 것이 수험생과 부모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7]